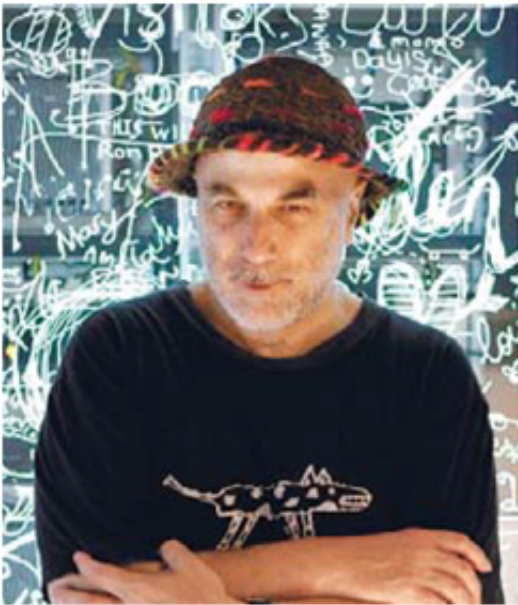


금속활자와 하이테크의 만남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 9월1~8일까지  
11개국 35개팀 출품… 창조적 가치 재조명

오랜 역사 속에서 하이테크와 예술은 상호보완 관계였다. 최근 들어선 하이테크를 접목한 미술이 하나의 큰 흐름을 형성할 정도다. 오는 9월 1일부터 8일까지 충북 청주 예술의전당과 청주 고인쇄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은 하이테크와 예술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직지코리아국제페스티벌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청주시가 주최하고 직지코리아조직위원회(위원장 이승훈 청주시장)가 주관하는 행사다. 직지가 당시 하이테크와 예술이 하나된 창조적 결과물인 점에 주목한 기획전시회라 할 수 있다.



론아라드



윌리엄 켄트리지

독립 큐레이터 김승민씨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는 11개국 35개 팀이 참여한다. 직지를 무한한 잠재력을 품고 있는 ‘금빛 씨앗’으로 정의해,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한민국, 독일,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중국, 캐나다, 터키에서 온 작가들이 직지의 창조적 가치를 재조명한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세계 3대 산업 디자이너로 손꼽히는 론 아라드가 이번 전시에 참여해 ‘직지 파빌리온’을 선보인다. 직지의 제본 형태인 선장본에 영감을 받아 옛 책을 엮어놓은 모양으로, 모듈러 형식의 조립 조형물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작가 윌리엄 켄트리지 드로잉을 배경으로 한 오페라 극도 선보인다.

편완식 미술전문기자

2016-07-19 20:52:01

세계일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